

2019년 4월 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둔화 우려 완화 속 상승 지속 미 10년물 국채금리 지표 개선 효과로 2.5%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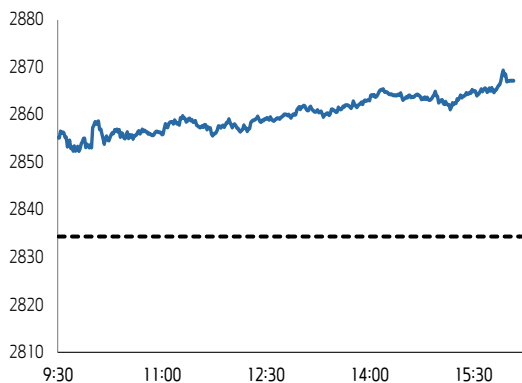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미 증시는 중국과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특히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상회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자 금융주 급등이 긍정적인 영향. 더불어 운송 및 산업재, 에너지, 기술업종 등 경기 개선 수혜 업종도 상승(다우 +1.27%, 나스닥 +1.29%, S&P500 +1.16%, 러셀 2000 +1.06%)

중국 3월 제조업 PMI 가 시장 예상은 물론 기준선을 상회한 50.5로 발표. 차이신 제조업지수 또한 50.8로 발표되며 4개월 만에 제조업 확장 국면으로 전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조업지표가 개선되자 우려감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이런 중국 제조업지표가 개선되자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 들이며 본격적인 중국 경제지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짐. 다만, 세부 항목에서 수출 주문이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유로존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 변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미국 ISM 제조업지수 또한 개선(54.2→55.3)된 결과를 내놓으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 세부항목에서도 한국 수출의 선행지수로 알려진 신규주문(55.5→57.4)이 개선되고, 고용지수(52.3→57.5)도 급증하며 고용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2008년 이래 실질 GDP와 73%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제조업지표 개선으로 시장이 우려했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완화. 더불어 2월 건설지출도 지난 1월(mom +2.5%)에 이어 전월 대비 1.0% 증가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특히 고속도로 등 도로공사가 전월 대비 9.5%(yoy +22.8%) 급증하는 등 인프라투자가 확산된 점이 특징. 이에 힘입어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2.1%로 전망. 금융시장에서는 지표 개선에 힘입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상회하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이 달러 대비 0.5% 내외 약세, 주요국 증시가 1%내외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68.28	+1.29	홍콩恒生	29,562.02	+1.76
KOSDAQ	736.81	+1.03	영국	7,317.38	+0.52
DOW	26,258.42	+1.27	독일	11,681.99	+1.35
NASDAQ	7,828.91	+1.29	프랑스	5,405.53	+1.03
S&P 500	2,867.19	+1.16	스페인	9,341.70	+1.10
상하이종합	3,170.36	+2.58	그리스	741.01	+2.72
일본	21,509.03	+1.43	이탈리아	21,520.25	+1.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및 금융주 강세

JP 모건(+3.37%), BOA(+3.34%), 씨티그룹(+3.44%) 등 금융주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강세를 보였다. 다만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1.01%)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UPS(+2.41%), 페덱스(+2.78%) 등 물류회사 및 유니온퍼시픽(+2.22%), CSX(+2.51%), 노퍽크(+3.56%) 등 철도 운송회사들은 제조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했다. 캐터필라(+3.51%) 등 기계업종과 AK스틸(+3.64%), US스틸(+3.39%) 등 철강업종은 미국 건설지출 특히 도로공사등 인프라 투자 급증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론(+2.23%)은 키뱅크가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높다며 매수 추천하자 상승 했다. 인텔(+1.51%), TI(+2.42%), AMAT(+3.71%), 아나로그디바이스(+2.86%) 등도 동반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상승 했다. 반면, 식료품과 가전제품 위주로 소매판매가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맥도날드(-0.80%), 다든레스토랑(-0.81%)을 비롯해 P&G(-0.39%), 킴벌리 클락(-0.91%) 등이 부진했다. 더불어 넥스트라에너지(-1.46%) 등 유틸리티와 리얼티인컴(-1.13%) 등 리츠금융회사들은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0%	대형 가치주 ETF(IVE)	+1.30%
에너지섹터 ETF(OIH)	+3.02%	중형 가치주 ETF(IWS)	+1.15%
소매업체 ETF(XRT)	+0.64%	소형 가치주 ETF(IWN)	+1.33%
금융섹터 ETF(XLF)	+2.45%	대형 성장주 ETF(VUG)	+1.13%
기술섹터 ETF(XLK)	+1.39%	중형 성장주 ETF(IWP)	+1.2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72%	소형 성장주 ETF(IWO)	+0.70%
인터넷업체 ETF(FDN)	+1.56%	배당주 ETF(DVY)	+0.85%
리츠업체 ETF(XLRE)	-0.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44%
주택건설업체 ETF(XHB)	+0.9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4%
바이오섹터 ETF(IBB)	+0.10%	미국 국채 ETF(IEF)	-0.69%
헬스케어 ETF(XLV)	+0.15%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85%	물가연동채 ETF(TIP)	-0.37%
반도체 ETF(SMH)	+2.46%	Long/short ETF(BTAL)	-0.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6.14	+1.37%	+2.33%	+1.33%
소재	352.48	+1.50%	+3.74%	+2.16%
산업재	645.46	+2.07%	+4.73%	+1.20%
경기소비재	911.77	+1.17%	+2.47%	+4.37%
필수소비재	578.90	-0.21%	+1.36%	+3.75%
헬스케어	1,064.24	+0.17%	+1.48%	+0.46%
금융	437.53	+2.42%	+4.31%	-0.31%
IT	1,317.40	+1.40%	+2.79%	+5.89%
커뮤니케이션	159.97	+1.45%	+1.14%	+3.05%
유틸리티	293.05	-0.71%	-1.33%	+1.51%
부동산	223.73	-0.28%	+0.65%	+3.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시클릭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7% MSCI 신흥 지수 ETF 도 1.6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02 계약)에 힘입어 0.75pt 상승한 282.2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루은 1,132.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제조업지표 개선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지표 또한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경제지표 개선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 수출 선행 지수로 알려진 미국 ISM 제조업지수 세부항목 중 신규주문지수가 개선 된 점도 우호적이다. 전일 3 월 한국 수출이 비록 전년 대비 8.2% 감소했으나, 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1% 감소에 그치는 등 수출 위축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표 결과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회사인 키뱅크 캐피탈이 하반기까지 D 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수요 요인이 확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마이크론에 대해 매수의견을 표명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9% 상승한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지난 주 독일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인피니언이 2019 년 매출 성장 가이드를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전히 여건이 좋지는 않아 하반기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여전히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G2 국가들의 제조업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시클릭업종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3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4.2)나 예상치(54.5) 보다 개선된 55.3 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8 년 3 월(59.3)이나 2019 년 1 월(56.6)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주문(55.5→57.4), 고용지수(52.3→57.5)는 상승한 반면 재고자산(53.4→51.8), 배송시간(54.9→54.2)는 부진했다.

2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mom +2.5%) 보다는 부진했으나, 예상치(mom -0.2%) 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1.0% 증가로 발표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이 전월 대비 3.6% 특히 도로 공사가 전월 대비 9.5% 급증 해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높아졌다.

2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 했다. 가솔린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6% 감소 했다. 자동차는 증가했으나, 전기전자 및 식료품 판매가 둔화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5개월내 최고치 경신

국제유가는 미, 중 제조업지수 개선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매수세가 유입되자 상승했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이뤘고, 이번 주에도 관련 협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또한 OPEC 의 3 월 생산량이 4 년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혼조 양상을 보였다. 미, 중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안전자산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달러 대비 0.5% 내외 약세를 보였으나, 파운드화는 지정투표를 앞두고 노동당이 노르웨이 스타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4 번째 브렉시트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로 달러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제조업지표 및 건설지출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지수도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1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2.1%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 했다. 이 또한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표 개선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G2 국가의 제조업지표 개선 영향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는 등 혼조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7%, 철근도 0.14%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1.59	+2.41	+4.71	Dollar Index	97.253	-0.03	+0.71
브렌트유	69.01	+2.12	+3.29	EUR/USD	1.121	-0.07	-0.90
금	1,294.20	-0.33	-2.62	USD/JPY	111.37	+0.46	+1.27
은	15.099	-0.07	-3.01	GBP/USD	1.3116	+0.62	-0.60
알루미늄	1,899.00	-0.68	+0.85	USD/CHF	0.9989	+0.37	+0.65
전기동	6,471.00	-0.18	+2.07	AUD/USD	0.7114	+0.25	+0.03
아연	2,933.00	+0.34	+3.57	USD/CAD	1.3314	-0.26	-0.67
옥수수	361.75	+1.47	-4.74	USD/BRL	3.869	-1.33	+0.37
밀	462.75	+1.09	-1.44	USD/CNH	6.7203	-0.04	+0.05
대두	895.50	+1.27	-1.21	USD/KRW	1133.70	-0.12	-0.04
커피	92.10	-2.54	-2.28	USD/KRW NDF1M	1132.70	-0.27	+0.1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01	+9.59	+10.26	스페인	1.137	+4.40	+3.80
한국	1.865	+3.50	-3.00	포르투갈	1.271	+2.50	-1.80
일본	-0.073	+0.80	+1.10	그리스	3.703	-2.50	-5.40
독일	-0.026	+4.40	+0.20	이탈리아	2.505	+1.90	+0.50